

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107조...글로벌 빅테크 첫 100조 돌파

매출 195조...전년비 126.6% 증가
아람코 제외 전 세계 유일 기록 세워
메모리 중심 반도체 전사 실적 견인
2027년 세계 최초 HBM4 양산 돌입
내년 영업이익 632조 전망치 상향 조정

삼성전자가 반도체 호황 속 기술 경쟁력 회복으로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천억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 원 시대를 열었다.

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이는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 아람코 외에 세계 어떤 기업도 도달하지 못했던 기록이다.

매출은 195조원으로 작년 동기 대비 126.6% 증가했다.

영업이익률은 제조업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55.1%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이번 영업이익은 연합인포맥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 105조7천533억원을 1.6% 상회했다.

한국 기업이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애플,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를 포함해도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영업이익 107조4천억원을 기록해 국내 기업 사상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다. 삼성전자는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이 107조4천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8.25%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8일 공시했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삼성전자 본사 모습. /연합뉴스

최초의 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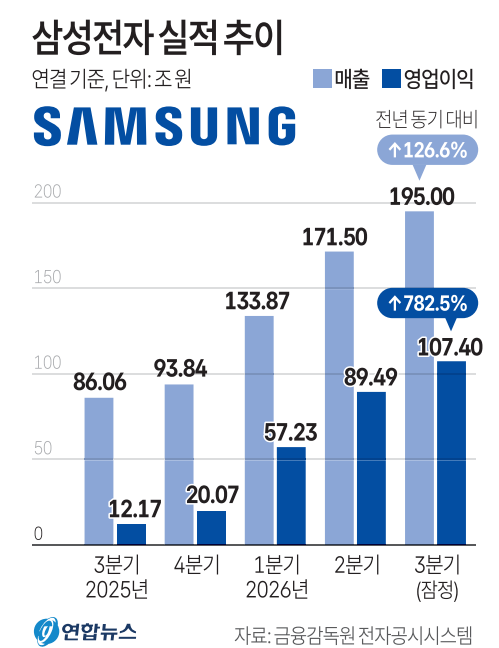
사우디 국영기업 아람코만이 우크라이나 전쟁 때인 2022년 2분기 영업이익 88억달러(약 116조 원)를 기록한 적이 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지난해 4분기 매출 88조8천억원, 영업이익 20조1천억원으로 나란히 역대 최대 기록을 세운 이래 4개 분기 연속으로 매출과 영업이익 신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영업이익은 이번 1개 분기만으로 작년 전체(43조6천억원)의 25배에 육박했다.

또한 이는 2022년(43조4천억원), (6조6천억원), 2024년(32조7천억원), 2025년(43조6천억원)까지 4년간 합산 영업이익(126조3천억원)에 근접하는 수준이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은 254조1천억원에 달해 올해 연간 350조원 달성에도 청신호



가 켜졌다.

이날 부문별·사업부별 실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번 분기에도 반도체부문(DS), 특히 메모리 사업부가 홀로 전사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범용 인공지능(AI·모든 작업에서 인간처럼 능력 발휘 가능) 도달을 목표로 한 글로벌 패권 경쟁으로 메모리 수요가 꺾이지 않은 결과다.

업계에서는 DS 부문이 전사 영업이익과 비슷하거나 이를 소폭 웃돌았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4분기는 물론 내년까지도 이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에 힘이 실린다.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는 4분기 범용 D램 가격이 전 분기 대비 10~15%, 낸드는 15~20%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양산을 시작한 HBM 4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적 개선에 기여할 전망이다.

내년 삼성전자 영업의 전망이 50조원 안팎으로 형성된 가운데 메리츠증권은 502조원에서 632조원으로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다만 DS 부문 내 LSI 및 파운드리 등 비메모리 사업부는 1조원 안팎의 적자가 이어졌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가동률 개선과 함께 사업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랩 가동에 따른 비용이 부담이 됐을 것이라 분석이다.

완제품부문(DX) 부문도 부품 가격 급등에 따른 원가 부담으로 이전 분기 창사 이래 첫 적자가 2분기째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에서는 모바일(MX)·네트워크 사업부가 1조5천억원 안팎의 넘는 적자를 기록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TV(VD) 및 생활가전(DA) 사업부도 5천억원 수준의 적자를 기록했을 수 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1조원, 하만은 2천억~4천억원 수준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으로 추산된다.

/박선욱 기자

aT, 중국 칭다오서 ‘K-골목길’로 K-푸드 알렸다

올림픽 요트센터서 4일간 홍보관 운영
라면·과자·전통주 등 168개 제품 선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중국의 대표 관광지에서 한국의 골목길을 재현한 홍보관을 운영하며 K-푸드와 한국 식문화를 알렸다.

aT는 8일 “지난 1~4일 중국 칭다오의 대표 해안 관광지인 ‘칭다오 올림픽 요트센터’에서 ‘K-골목길’ 홍보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행사에는 국내 식품기업 43개사가 참여해 라면과 과자, 음료, 홍삼, 유산균, 빵, 전통주 등 168개 제품을 선보였다.

칭다오 올림픽 요트센터는 요트 선착장과 산책로, 전망 포인트 등이 어우러진 중국 국가 5A급 관광지다. 올해 중국 국경절 연휴 나흘 동안 약 28만명이 이곳을 찾은 가운데 하겐다즈와 칭다오맥주, 루이싱커피 등 대형 식품 브랜드들도 팝업스토어를 운영했다.



aT는 올해 이곳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 유일한 한국 기관으로, ‘K-골목길’을 마트와 약국, 빵집, 포장마차 등으로 구성해 한국 식품을 현지 소비자들에게 소개했다.

특히 ‘칭다오 한식협의회’와 협업해 현지 한식당 셰프들이 참여하는 ‘분식집’을 운영하고 떡볶이와 김밥, 순대 등을 판매했다. 포장마차에서는 소주와 막걸리, 전통주 등을 선보이며 방문객들이 한국식 먹거리와 문화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행사 기간 K-골목길을 찾은

방문객은 약 1만명에 달했다.

현장 체험이 실제 구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온라인 판매와 연계한 홍보도 진행했다. aT는 중국 주요 전자상거래 플랫폼인 티몰(Tmall), 징둥(JD.com), 더우인(Douyin), 핀뉘뉘(Pinduoduo)의 온라인 한국식품관과 연계해 홍보관 곳곳에 QR코드를 설치하고 할인 쿠폰을 제공했다.

한국 농림축산식품의 중국 수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8월까지 중국 수출액은 10억8천56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라면 수출액이 3억233만달러로 28.1% 늘었으며 과자류는 6천833만달러, 조제분유는 2천375만달러로 각각 1.3%, 5.8% 증가했다.

전기관 aT 수출식품이사는 “칭다오는 중국의 대표 관광지이면서도 만류 올림픽센터와 같은 유명 관광지를 활용해 K-푸드를 널리 알렸다”며 “중국 수출 확대를 위해 K-푸드의 우수성을 알리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안태호 기자

순천 향전휴게소서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市·도공 광주전남본부, 오늘부터 사흘간
함초소금·고추장 등 최대 20% 할인 판매

순천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직거래장터가 한글날 연휴 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열린다.

한국도로공사 광주전남본부는 8일 “순천시와 9~11일 순천·완주고속도로 향전휴게소 완주방향에서 지역 농특산물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직거래장터에서는 순천지역 식품업체들이 생산한 다양한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20%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나들이객과 귀성객들에게 지역 농특산물을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해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서는 함초소금을 비롯해 우슬함초환, 흑염소 전액, 풍한과·강정세트, 김부각, 고추장, 청국장 등 순천지역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최근 소비 위축으로 지역 소상공인과 농가의 어려움이 커지는 가운데 이번 직거래장터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소득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박주현 관리처장은 “이번 직거래장터가 지역 농특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알리는 동시에 소상공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전남광주특별시민은 물론 전국 각지에서 방문한 관광객들이 지역 농특산물의 진가를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선욱 기자

www.kjdaily.com

광주매일신문을 펼치면

광주·전남의 미래가 보입니다

지역의 품에서, 독자의 곁에서 늘 사랑받는 신문이 되겠습니다!!

시내 지역

- 중앙지국 222-8171
- 산수지국 224-4188
- 학운지국 673-6836
- 화정지국 372-9140
- 금호지국 376-7153
- 풍암지국 603-0311
- 노대지국 674-3581

지방 지사

- 목포지사 061)270-8689
- 동문포지사 061)278-0740
- 남목포지사 061)245-3797
- 신안지사 061)980-8300
- 순천지사 061)746-1600
- 여수지사 061)651-6433

- 상무지국 453-2554
- 광천지국 374-2120
- 진월지국 676-2726
- 봉선지국 673-6836
- 백운지국 673-0123
- 두암지국 266-1920
- 농성지국 362-4102

- 유동지국 222-8171
- 운암지국 529-3548
- 용봉지국 261-1503
- 신가지국 954-1420
- 양산지국 574-3745
- 하남지국 951-9954
- 운남지국 952-1687

- 오치지국 261-9461
- 문흥지국 261-9462
- 일곡지국 573-3200
- 첨단지국 971-7374
- 치명지국 371-9584
- 수원지국 955-0451
- 광산지사 944-0993

- 무안지사 061)453-3645
- 함평지사 061)322-0882
- 영광지사 061)353-5133
- 장성지사 061)394-3636
- 완도지사 061)555-0134
- 진도지사 061)542-4330

▶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자로 338번길 16(구동1-21) ▶ 대표전화:062)650-2000 ▶ 구독문의:062)650-2022